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2.23~2015.12.29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권으로 읽는 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6	조용현의 휴휴명당	조용현	불광출판사
2	숨죽음을 통해서 더 완전 삶에 이르는 이야기 능력	마음의숲	마음의숲	7	불교범어사전	박지영/이서경 하남	불광출판사
3	이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8	지금이라도 알아야 다행인 것들	원영	불광출판사
4	신묘정구대다라니기도법	정호선/김현준	효림	9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위로와 응원 읽는 법)	일강스님	민족사
5	가피-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	모과나무	10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와 위사	전현수	불광출판사



## “한국불교의 빈틈을 메우는 계기로”

고영섭 교수, <삼국유사 인문학여행> 등 세 권 펴내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후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불교사 연구에서도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사진)가 최근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불교사에 관한 책 세 권을 펴내 눈길을 끈다. ‘삼국유사 인문학여행’, ‘분황 원효’, ‘한국불교사탐구’ (이상 박문사)가 그 것이다. 이들 책은 한국불교사의 연구방법론부터 그동안 설화로만 전해지는 삼국유사와 원효 스님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고 교수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관통하는 인물, 사상, 사찰, 지역, 제도 등을 광범위 하게 다뤘다.

삼국유사로 확장된 <삼국유사>

고영섭 저 | 박문사 펴냄 | 4만 6천원



고영섭 교수는 먼저 <삼국유사 인문학 여행>에서 <삼국유사>를 한국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으로까지 평가한다.

고 교수는 <삼국유사>가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다룬 기본 서적이면서도 정작 읽는 사람이 없음을 개탄하며 <삼국유사>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총 81장에 걸쳐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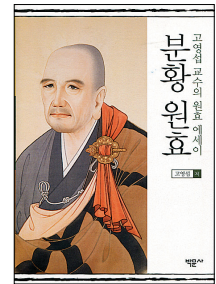
고 교수는 “<삼국유사> 속에는 당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새롭게 이름을 붙인다면 ‘삼국유사’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신라 관계 사적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삼국유사>가 기여할 수 있다. 일연 스님도 전편의 절반을 이에 할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삼국유사>는 개별의 설화가 불교문화콘텐츠로 활용이 되기 위해 그 가치가 더욱 높다. ‘삼국유사 인문학 여행’ 속에는 이런 <삼국유사> 속에 담긴 재미있는 내용이 색다른 해석과 함

께 담겨 있다. 가령 ‘무열왕이 태종으로 불릴 수 있었던 까닭은’에서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김유신과의 혈연동맹에 대한 ‘가야세력과 신라세력의 연합’이란 새로운 해석과 함께 후에 원효 스님과 요석공주의 인연의 배경으로 김춘추가 있음을 들고 그를 대외교가로 평가한다.

원효의 사상이 면모 조명한다 <분황 원효>

고영섭 저 | 박문사 펴냄 | 2만 7천원



고영섭 교수는 <분황 원효>에서는 원효 스님의 방대한 저작을 쉽게 풀어냈다. 고 교수는 원효 스님을 동아시아 대사상이자 대자유인으로 그려낸다. 총 103부 208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법신사리 또한 이 자유에서 나온 것임에 착안해 고 교수 또한 예시 형식을 빌려 그 글 속에서 자유와 재미를 느끼게 한다.

고영섭 교수는 “이 책을 쓰며 원효 스님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 초기불교와 아비달마 불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됐다”며 “원효 스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어느새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으로 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분황 원효> 속의 ‘젊은날의 초상’ 편을 보아도 고 교수의 이런 마음은 잘 드러난다. 낭지법사와 혜공 스님, 보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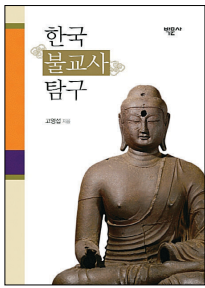


한국불교사 연구방법론 부터 구전되는 삼국유사 연구내용 담아 인물, 사상, 제도 등 총망라해

을 조명한 이 글에서 ‘분황에게 일정한 스승은 없었다. 다만 몇몇 길라잡이는 있었다. 우리 도처에는 수많은 스승이 숨어 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고 말한다. “원효 스님은 젊은 시절부터 내게 ‘의미’와 ‘재미’를 생생하게 해준 광맥이었다”는 고 교수는 불자들이 시대의 지식인이었던 원효 스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나마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

주체적 사관 드러난 <한국불교사탐구>

고영섭 저 | 박문사 펴냄 | 4만 9천원



이와 함께 펴낸 <한국불교사탐구>는 종래의 한국불교사 통사류에서 빠져있는 주체적 사관이 드러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 고 교수는 불교가 어떻게 한국사상의 고유성에 기여하는지를 염두에 두며 한국사와 한국불교사의 접점, 한국불교와 국가, 역사 인물, 시대정신 등의 4분야에 걸쳐 논지를 전개한다. 고 교수는 그 이면에 한국불교가 ‘실천’의 인도불교와 ‘교학’의 중국불교를 받아들여 이를 치유침 없이 아우르는 한국만의 불교학으로 발전시켰다는 사상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불교사의 각 영역에서도 고유의 독자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통념에서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로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통일신라시대도 대발해가 병존한 ‘남북국시대’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와 고 교수는 불교의 호국과 호법, 조선 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미, 오대총림 연구 등도 차례로 조명했다. 또 조선 후기 고승의 비석 건립과 문집 간행을 통해 불교와 유교가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또 고 교수는 책에서 그동안 한국불교사 연구가 고승들의 행적과 사상의 연구에만 치중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사상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역할을 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연구 대상도 출가자 중심이 아닌 사부대중, 더 나아가 사회 전체로 확장시켜야 함을 역설한다. 고영섭 교수는 “비구 외에도 비구니, 거사, 부인들을 발굴하고, 그 존재를 사물론 통해 복원해 한국불교사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한국불교통사를 간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기술방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며 “엄실, 연기설, 중도 등 사관의 확고한 정립과 사부대중에 대한 조명, 세계사와 연관된 쟁점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한국불교사의 빈틈을 채워간다는 관점에서 책을 저술했다. 한국불교 연구의 새로운 기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저자 고영섭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불교사학회 및 한국불교사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 <한국불학사>, <한국불교사연구>, <원효탐색>, <한국의 사상이 10인 원효> 등이 있다.

## 초기경전과 주석서에 등장하는 1백여 여성 그중 붓다가 칭송한 18명 가려 뽑아 소개

붓다의 길을 걷는 여성

옥복연·이미령 저 |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5천원



붓다의 가르침을 받으며 진지한 구도적 삶을 살았지만 여성이란 이유로 주목받지 못한 수행자가 있다. 이 책에는 뛰어난

나지만 그동안 조명되지 않던 여성 수행자 열여덟 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동안 붓다를 만난 인물을 조명하는 도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여성 인물만을 다룬 도서는 찾기 어려웠다. 더구나 세속에 머물며 붓다의 가르침을 따른 여성의 이야기는 주목받지 못한 채 기록에만 남겨져 있었다.

이 책은 초기경전과 주석서 등의 불교 문헌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중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구도의 길을 간 열여덟 명의 뛰어난 재가 여성 수행자를 재조명한다. 부정적인 여성관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인도 사회에서 그녀들이 어떤 계기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어떤 인연으로 위대한 스승을 만났으며, 어떤 방식으로 구도의 길을 걸었는지를 살펴다 보면 붓다의 인간 평등과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붓다 재세 당시 인도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이면서 엄격한 카스트 제도가 있는 신분제 사회였다. 그 속에서 여성은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아버지, 남편, 아들과 같은 남성에게 종속된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오묘 투성’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붓다는 여성을 교단으로 받아들여 남성 과 동등하게 출가를 허용했으며, 재가 여성에게도 자상하게 가르침을 전했다. 여기에는 여성 역시 수행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여성이 남성보다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초기경전과 주석서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100여 명, 그중 이 책에 담긴 열여덟 명의 여성은 뛰어난 수

행으로 붓다의 칭송을 받았다. ‘교단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교단 발전에 헌신적이면서 여성 불자들의 리더 역할을 한 위사가, 평등심과 자애를 몸소 실천한 사마와피, 자신의 장애와 신분을 극복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널리 퍼트린 쿿따라 등등 가정에 속한 아내이자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딸이지만 남성 못지않은, 때로는 남성보다 뛰어난 수행자의 면모를 보여 준다.

이들의 뛰어난 면모는 여성을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겼던 기존의 편견과 주장을 반박하고 ‘차마 불교’ ‘기복불교’로 치부되던 여성의 신행과 수행에 대해 재평가하여 ‘모든 인간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러 해 동안 초기경전에 관심 갖고 살핀 두 저자는 여성이 태생적으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지게 됐을 뿐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불교

위사가, 사마와피 등 조명 여성의 신행과 수행 재평가

경전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의 이웃종교,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여성이 어떻게 부족한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비교, 서술한다. 그리하여 남성중심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등으로 인해 붓다가 말한 진정한 의미의 평등과 생명 존중의 사상은 사라지게 됐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여성의 역할은 제한되며 뛰어난 여성은 타자 혹은 주변인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되었음을 밝힌다.

이 책은 결과적으로 ‘남성보다 더 치열하고 성숙한 수행의 삶을 살아간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계 인구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여성’, 특히 세속에 떠나지 않고도 바른 길로 걸어온 여성 불자를 치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로써 이 시대의 여성 불자 모두에게 앞으로 도전적인 구도적 삶을 살아가 수 있는 용기와 자부심을 심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미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신심과 원력의 수행도량!

## 운문사 승가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요강

- 모집대상 \_ 2016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 모집인원 \_ 사미니과 00명
- 시험과목 \_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만 의 착용) 2매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 모집기간 \_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도착일시 \_ 2016년 1월 2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_ 2016년 1월 29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 통 편 \_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특 전 사항

- (1) 해외교류 대학·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학과
  -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 (2) 연수교육사항
  - ① 2학년 수료 후 대만불교연수
  - ② 4학년 학기 중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교육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학장 일진 주지 진광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요강

- 모집대상 \_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6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 모집인원 \_ 00명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증명사진 2매
- 모집기간 \_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 전형일시 \_ 2016년 1월 2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특 전 사항

- (1) 해외교류 대학·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학과
  -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지원
-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전문승의사
- (4) 교육원 연수교육비 지원
- (5) 해외 연수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보현율원주 명성 원광 일진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